



“민사고 영재학생 후원자 찾습니다”

“소외계층을 돕는 의료봉사자가 되고 싶었는데, 잠시 공부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올해 광주·전남지역 중학교 졸업자 가운데 영재학생으로 발탁돼 자율형 사립고인 민속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한 김찬미(16)양의 목소리는 어두웠다.

저소득층 학생인 찬미양은 올 2월 화순 제일중을 졸업한 뒤 ‘덕고(德高)장학생’ 제도를 통해 민사고에 입학한 영재다.

화순 출신 저소득 장학생 김찬미양 독지가 후원 끊겨 학업 중단 위기 “소외계층 돕는 의술 펼치고 싶어요”

학 시험에 합격할 경우 독지가가 연계시켜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덕고장학생’ 제도로 올해 민사고에 합격한 찬미양도 서울의 한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 미래의 꿈인 의료봉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불황 여파로 찬미양은 꿈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3년간의 학비 지원을 약속한 독지가의 형편이 좋지 못해 1기분 납입금마저 납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찬미양의 부

모는 새로운 후원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지만, 최근 경제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독지가를 찾기 못하고 있다.

전남에서 개척교회 목사로 봉사하고 있는 찬미양의 아버지도 수입이 적고, 자녀도 4명이나 돼 연간 1천만원이 넘는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다.

민사고측은 학교 내규에 따라 납입금이 지연될 경우 찬미양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사고 관계자는 “찬미는 매우 똑똑하고 진취적인데다 의지도 강해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라면서 “학교 차원에서 돕고 싶지만, 학교 내규로 지원이 금지돼 있고, 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찬미양은 영재들만 모였다는 민사고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독지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학교를 그만둬야 할 형편에 처한 찬미양은 “학비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그렇다고 내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며 학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찬미양의 어머니는 “시골에서만 자라온 찬미는 어려서부터 형편이 어렵고, 몸이 아픈 노인들을 돕는 게 꿈이었다”면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비 문제로
마음 무겁지만
의료봉사자 꿈
포기할순 없어요”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1분 해질 19시 05분 달돋이 -시-분 달질 09시 25분

거리에 '꽃비'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해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진주, 남원, 옥산도.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제주.

Table with 5 columns: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Rows for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and 주간날씨.

광주 공기업 ‘일자리 나누기’ 확산

도시공사 등 임금 쪼개 인턴사원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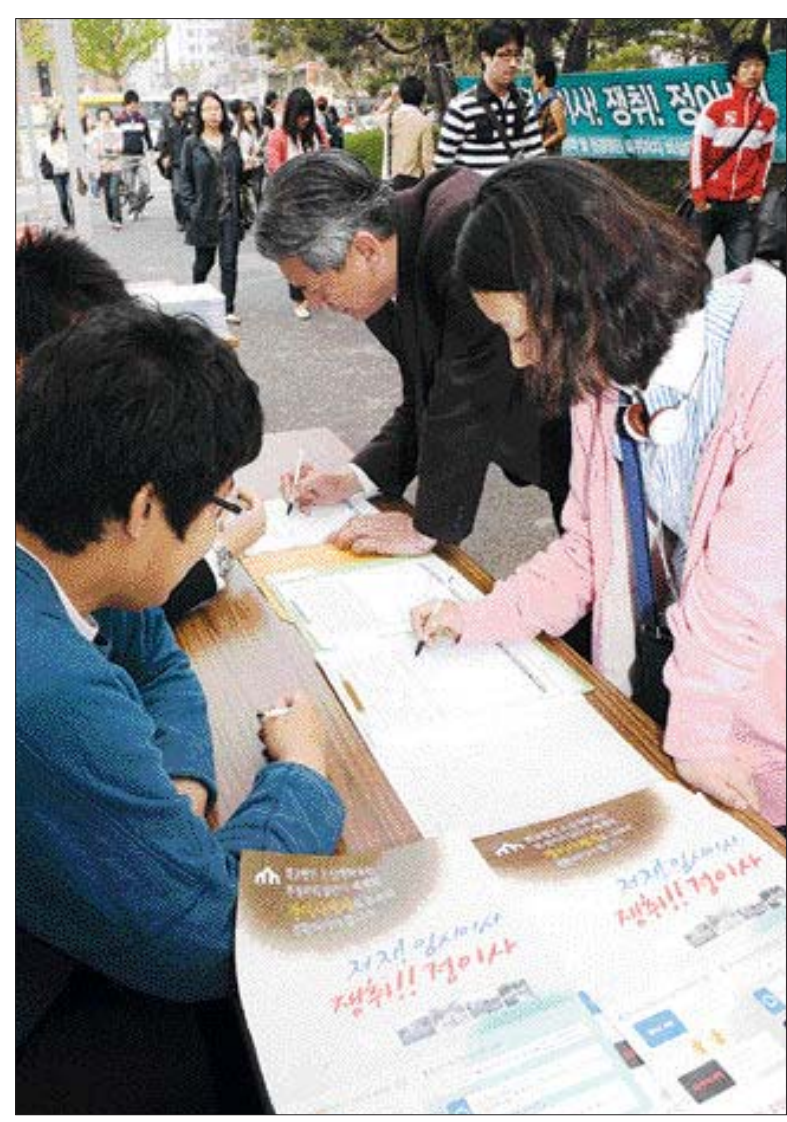
광주시 산하 공기업들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직원들이 자신의 임금 일부를 반납해 재원을 마련,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

광주도시철도공사 역시 임직원들이 복리후생비를 반납해 마련한 1억8천만 원으로 18명의 인턴사원을 뽑았다.

1~3%의 기본급을 반납해 인턴사원 채용에 사용할 방침이다.

최근 심각한 지역 내 젊은이들의 일자리 부족을 감안하면 이 같은 공기업들의 ‘임금 나누기’는 민간기업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대 정상화 시민 서명. 14일 오전 조선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법인 조선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이사 파견 반대와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

거문도 고양이 ‘불임수술’로 번식 막는다

운동본부 15~23일

고양이때로 몸살을 앓아온 다도해국립공원 거문도에서 수의사들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TNR)을 실시해 번식을 막기로 했다.

부터 23일까지 삼산면 거문도 현지에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측은 “중성화 수술로 고양이의 추가 번식을 막고 발정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이가 민가를 ‘습격’하는 등 큰 골칫거리가 돼 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지난 2000년과 2003년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소탕작전을 펼쳐 안락사(살처분)를 시켜왔으며, 지난해에도 25마리의 고양이가 안락사됐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광주 북구 ‘U대회 유치 기원 봄꽃 잔치’

22일까지 북구청 광장

“화려한 봄꽃 향연, 도심에서 즐기세요.” 광주시 북구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구청 광장 일대에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유치 기원 봄꽃 잔치’를 연다.

30점 등도 구청 광장을 가득 메우게 된다. 유명극단의 어린이 인형극과 어린이 재롱잔치, 음악회, 비누공예품 만들기, 북구 미술인 초대전, 조순가정 및 독거노인 가족사진 촬영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대학에 실버타운·유치원·쇼핑몰 허용

민자유치 활성화 기대

대학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 쇼핑몰 등 상업·복지 시설을 세우는 것이 허용되고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의 민자유치 여건이 한층 개선된다.

퍼스 내에 쇼핑몰과 같은 판매시설, 실버타운·유치원 등 노유자(노인·어린이) 시설, 문화·복지 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연습스

Large advertisement for '무안 - 장사(장가계) 무안공항 직항!!!' featuring a train and promotional text. Includes contact info: 광주 MBC 문화방송, 문의 062-226-6070.